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42호 / 2026년 10월 07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압도적 찬성으로, 투쟁을 결의하자!

- 회사의 성장만큼, 우리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

최근 현장에 만도지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줄어드는 현장 인원을 채우고, 정체된 임금체계 개선과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분배 요구다. 무엇이 그렇게 과도하다는 것인가?

그동안 월급제 이후 임금인상의 한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기능직 신규채용이 끊긴 현장은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고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코로나 시기 임금동결도 감수했지만, 그 이후 회사의 성장만큼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제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보여주자!

두 달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충분히 설명했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은 하반기 불확실성과 책정된 예산을 앞세워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는 거부하고 일방적인 양보만 있는 교섭, 임단협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사저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회사가 죽고, 조합만 번창할 수 없다” 고 한다. “회사가 흔들리는데 직원들의 삶만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 고 한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숨죽인 지난 14년 동안 조합원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회사와 직원의 미래는 결코 따로 갈 수 없다” 고 했다. 그렇다면 회사의 성과가 직원의 임금과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5년과 26년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현장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압도적 찬성을 통해 투쟁을 결의하자.

대 회 사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부장 이현우입니다.

금일 집행부와 조합원 동지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3번의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건넨 것은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렵다. 과하다. 입장차이가 크다. 회사는 작년보다도 못한 기본급 인상액과 성과급을 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기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동지여러분!

최근 6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회사의 성과는 최고치를 찍는데, 조합원의 뭇은 오르기커녕 뒷걸음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14년의 침묵을 깨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더는 물려서지 않겠

다는, 만도지부 조합원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입니다. 금일 이 자리에서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보여줄 단결의 크기가, 앞으로 교섭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투쟁은 지부장 한 사람의 것도, 집행간부 몇 명의 것도 아닙니다. 전 조합원의 삶이 걸린 문제이고, 그렇기에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금일 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켜내기 위해 찬성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부장으로선언합니다. 이 투쟁,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건졌습니다. 14년간 쌓인 문제를, 6년간 뒷걸음질친 우리의 뭇을, 이번 투쟁을 통해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정당한 뭇을 쟁취할 때까지,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결코 물려서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